

오피니언

光日春秋

정 종 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창 젊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의 구상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일단 중단시켜야 하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의 상황변화에 불안해한다.

국방의무 선진화 할 때다

보내는 부모도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아직도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서 웃는 사람보다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더 많다.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이나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서 행위까지 강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으며, 병역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의무도 없다. 군인을 민간의 도로공사, 모내기, 화재진압, 거리청소 등에 강제로 동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병사들의 월급부터 문제가 된다. 현재 병사들의 월급을 보면, 일병 7만3천500원, 이병 7만9천500원, 상병 8만8천 원, 병장 9만8천 원이다.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여처구니없는 년 센스이다. 그리고 아직도 병영 내 일상 생활에서 위험요소도 적지 않고, 병사들이 거거할 막사조차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 교제작업도 함없이 더하니, 이런 상황에서 국방의무가 즐거울리는 만무하다.

면, 그간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저축한 돈이 적어도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라도 되든지 해외답사여행경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을 빼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에 가기 전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제대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국방의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정으로 국방의무가 고귀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사이비 기자 활개칠 수 있는 토양이 문제다

사이비 기자의 폐해가 갈 데까지 간 형국이다. 광주지점은 지난 2월부터 사이비 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광주·전남에서만 18명을 적발했다.

이 능력도, 자작도 없는 언론사의 난립은 지역언론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결국 정상적인 언론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

언론사 난립과 사이비 기자의 폐해는 심각하다. 지역민 사이에 '80년 군사정권의 언론통폐합 시절이 오히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같은 사이비 기자의 범람은 언론사의 난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 2월 현재 광주·전남에 등록된 언론사는 일간지 33개, 주간지 108개 등 306개 이른다고 한다.

잇단 보조금 축소 농업지원 중단 수순인가

요즘 전남지역 농어민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가 영세 농업인 가구에 지원해온 각종 보조금을 잇달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로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보조금 개편 배경은 경쟁력이다.

이 같은 개편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보조금은 축소한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 정부의 지원중단은 농어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농업선진화 위원회는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쟁력을 키워 농어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바람직하다.

의료 칼럼

정 재 훈



모든 분야에서 날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병원 경영도 예외는 없다. 요즘 병원들은 대부분 경영에서도 마케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환자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의료도 서비스 마케팅시대

어떻게 마케팅을 잘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가 되었다.

병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신중히 고려하는 병원들의 집합이다.

마케팅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상품, 서비스의 개념, 가격, 관측 및 유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인간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병원이든 환자의 고려사항에 들지 못했다면 그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려병원군에 들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지도와 특징들이다.

산출물(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을 '마케팅 믹스'라고 하며, 마케팅관리자가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혼합적 전략을 수립·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요소로서 4Ps라고 줄여서 말한다.

그동안 농업은 생명창조 역할과 비교역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보호되고 육성돼왔다. 앞으로도 농정의 기본틀은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마케팅에서는 3Ps를 더해 7Ps라고 해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 프로세스(Process), 사람(People)이 추가된다.

역대의 농업인을 많이 배출하는 농정에는 동의하지만, 비농업인의 자본을 유지해 기업농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하는 틀은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행복한 정책이 아니다.

보험 과장 광고 흥수...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요즘 메일을 열면 스팸으로 "만기된 보험의 보험료, 전부 돌려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자주 들어온다. 가정마다 보험은 기본으로 몇 개씩 들다 보니 이런 광고는 당연히 눈에 확 띄는 내용이다.

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 있다. 이때 만기환급형의 경우 순수보장형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원금을 돌려받더라도 당시 시점과 물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은행 저축의 개념과 똑같이 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저렇게 전부 돌려준다면 보험사는 뭘 먹고 살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험에는 저렴한 가격에 만기시 환급을 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이 있는 반면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만기가 될 경우 납입

특히 보험료를 전부 돌려준다는 말을 무턱대고 믿어선 안 되며 자신이 가입할 보험이 순수보장형인지 만기환급형인지를 따져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정동

기 고

김 수 공



농업을 주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60년대 농촌 모습 같은 행복의 섬 '바누아투'는 빈곤하지만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를 자랑한다.

중점을 두지 않고 국내시장을 겨냥해 시장논리에 의한 무차별 경쟁을 유발한다면 정책적 주도한 주무부처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을

첫째 정부는 농정이 다수 농업인들을 만족시키는 시책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올 들어 정부의 농정은 규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며 소수의 기업농 중심으로 기울면서 다수의 중소농가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농업인들은 현재도 농산물을 생산비를 병행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대 농업인을 많이 배출하는 농정에는 동의하지만, 비농업인의 자본을 유지해 기업농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하는 틀은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행복한 정책이 아니다.

그동안 농업은 생명창조 역할과 비교역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보호되고 육성돼왔다. 앞으로도 농정의 기본틀은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원을 이용한 후에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서비스가 더 훌륭하다고 느끼고 고객 감동, 기대보다 못하면 불만족, 기대와 같으면 만족을 하게 된다.

농업인들은 현재도 농산물을 생산비를 병행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대 농업인을 많이 배출하는 농정에는 동의하지만, 비농업인의 자본을 유지해 기업농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하는 틀은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행복한 정책이 아니다.

자칫하면 소수의 기업농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나아가 기대했던 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본래의 취지대로 수출농업에

그때와 농업·농촌·농업인이 살고 정부 농정에 바쁘게 보내라 믿는다. 농업·농촌이 더 발전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붕괴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장

영세상인들에 부담 큰 카드 수수료 내려야

지금 영세 상인들은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비구니 물가를 피부로 느끼는 주부님들은 연일 생필품값 폭등을 절감할텐데 그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영세상인들의 상관까지 장악한 뒤 광고 홍보비와 인건비를 전부 다 물건값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상인들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고, 동네 작은 업소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정부는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만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장영현·광주시 동구 총장로 2가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featuring '동편제(東便制)' and '無等鼓' sec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and details about a 'Dongpyeongje' (East Convenience) initiative.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